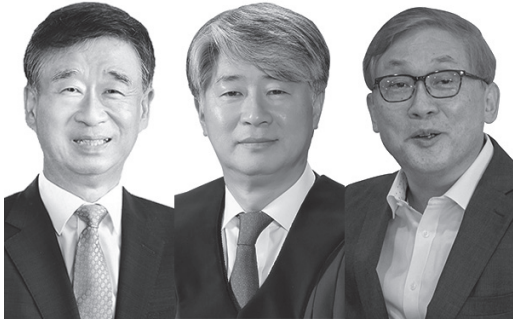


## 법무매거진



### 차기 대법원장 후보 '오석준·이종석·홍승면' 유력 검토



〈오석준·이종석·홍승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과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 이미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 경력이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 재판관과 홍 부장판사는 대법관 경력은 없지만 사법부 내부에서 이견이 없을 정도로 역량이 뛰어난 법관으로, 재판 지연 등 논란에 처한 사법부를 안정시킬 책임자로 검토되고 있다.

4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9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 후임으로 오 대법관과 이 재판관, 홍 부장판사 등 3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신임 대법원장 후보 지명은 8월 20일 전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파주 출신인 오 대법관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오 대법관은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대내외 소통 능력은 물론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는 데다 법조 안팎에서 대법관 중 차기 대법원장이 나와야 법원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책임자라는 평이다. 오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경북 칠곡 출신인 이 재판관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2018년 10월부터 헌법재판관을 지내고 있다. 이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로 손꼽힌다.

경기 안성 출신인 홍 부장판사는 고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지냈다.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을 만큼 사법행정과 법

리에 밝아 차기 대법원장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0여 년 전 대구고법에서 '판례 공보 스티디'를 시작해 현재 회장을 맡으며 온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김명수 코트에서 동료 법관들로부터 수차례 대법관 후보로 천거를 받았으나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9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차기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나 선관위원 등 인선도 책임진다. 새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법조 지형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출처/법률신문)